

# 칠레 12월 경제 동향 (교역, 환율 등)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   작성일2023-01-02

최근 주재국 경제 동향(경제성장 전망치, 환율, 무역) 아래와 같이 보고함.

## 1. 2023년 주재국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

- ECLAC에서 12월 발표한 금년 칠레 성장률은 2.3%, 2023년의 경우 -1.1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(2위: 아이티 -0.7%), △고용시장 불황으로 인한 내수 감소, △인플레이션 등이 경제 성장에 부정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.
- 아울러 동 기관에 따르면, 중남미 역대 평균 성장률은 금년 3.7%(2021년 6.7%)로, 2023년의 경우 경기 둔화가 심화되어 1.3%로 전망
- 한편, 칠레 중앙은행의 12월 발표에 따르면, 2023년 칠레 경제 성장률은 -0.75~0.75%로, △고용 창출 감소와 △실질 임금 감소 및 △긴축적 금융 시장 환경 등으로 인해 소비가 4.5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.
- 아울러 투자 분야 또한 하향세로, 2023년 총고정자본형성은 5% 감소, 2024년에는 0.2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△기업 관련 비관적 전망 확산, △금융 상황 긴축 기조 및 △실질 환율 상승 등을 주원인으로 꼽음.

## 2. 환율 안정화 추세

- 칠레 중앙은행에 따르면, 금년 칠레 환율은 최저 711페소에서 최고 1,060페소로, 1년 동안 300페소 이상 차이를 보여 역대 최대 변동치라고 설명한 바, 주원인으로 △전세계 달러 강세, △구리 가격 하락 및 △국내 불확실성 심화를 들고 있음.(2021년 또한 변동성이 컸던 해로 200페소 변동).
- 한편 7~9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9월 실시된 신헌법 찬반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, 2019년 사회 소요사태 이후 심화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10월 이후부터 달러당 800페소 중반대로 안정화 추세 관찰
- 이와 관련, 2023년에는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환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△중국의 코로나 상황 등 대외 상황과 칠레 △연금개혁, △광업 로열티 입법 등 국내 정책 시행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시사

### 3. 물가 상승 지속

- 칠레 통계청(INE)이 12월 7일 발표한 1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(IPC)는 전년 동월 대비 +13.3%, 연초 대비 +12.5%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월 기준으로는 1% 상승함.
- 주요 품목별로 보면, 연간 물가상승률 기준 △ 식품·음료(24%), △ 외식·숙박(17.2%), △ 운송(22.1%), △ 휘발유(38.8%)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를 견인
- 한편,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1.6%로,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6.6%, 3.2%로 예측

### 4. 무역 동향

- 칠레 2022년 1~11월 기준 교역액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10% 증가하여 1,850억 불 기록함.
- 2022년 11월 기준 수출액은 885억 9천 6백만 불을 기록하였으며, 총 194개국에 수출, 이 중 124개 국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
- 주요 수출국으로는 △ 중국(+42억 4천 4백만 불), △ 한국(+14억 8천 6백만 불), △ 일본(+5억 1천만 불), △ 멕시코(+4억 6천 2백만 불), △ 벨기에(+2억 9천만 불) 등이 있으며, 지역별로 △ 아시아(+62억 5천 7백만 불), △ 중남미(+21억 5천 7백만 불), △ 유럽(+13억 8백만 불)에서 수출 증가 관찰
- 한편, 11월 기준 구리 수출은 전체 55.3%를 차지하였으나, 작년 동기간 대비 18.1% 하락해 총 396억 6백만 불을 기록 (-87억 3천 8백만 불)
- 구리 외 수출은 2021년 대비 31.2% 증가(+116억 4천 2백만 불), 489억 9천만 불을 기록하였으며, 주요 수출 증가 품목으로는 △ 화학제품(+27억 8천만 불), △ 연어(+13억 1천 9백만 불), △ 납(+5억 1천 2백만 불), △ 요오드(+4억 6천 9백만 불), △ 신선체리(+3억 1천 7백만 불), △ 목재(+2억 2천 2백만 불) 등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11월 제철을 맞은 체리 수출은 37% 증가
- 한편, 11월 수입액은 작년 동기간 대비 17% 증가, 967억 1천 1백만 불을 기록하였으며, 분야별로, △ 중간재(518억 8천 2백만 불, +27%), △ 소비재(266억 4천 3백만 불, +7%), △ 자본재(180억 8천 7백만 불, +8.3%) 등

- 1~11월 기준 수입 품목별로 살펴보면, △경유(+38억 8천 5백만 불), △화학제품( +11억 9천 8백만 불), △의류(+10억 9천백만 불), △석탄(+9억 7천 2백만 불) 등 수입 증가 관찰

- 칠레 주요 수입 지역별로 살펴보면 △중국(227억 4천 7백만 불, +1%), △미국(192억 5천 9백만 불, +43%), △메르코수르(160억 9천만 불, +32%) 등.

---